

ISO 인증, 전 세계 178개국에서 145만여 인증서 활용

약 6% 증가,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표준 증가 두드러져

ISO에서는 2010년도 'ISO 인증 설문조사'에 의거한 자료를 발표했다.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178개 국가에서 145만7,912건의 인증서를 발행하였고, 6.23%의 인증서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<편집자>



▲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표준의 활용도는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

<ISO 인증 설문조사> 최신판에는 201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총 178개 국가에서 145만7,912건의 인증서와 하나 이상의 표준으로 6.23%의 인증서 활용이 늘어난 수치를 제시하면서 품질, 환경, 의료장비, 식품안전성과 정보보안 등에 관한 ISO 경영시스템표준의 글로벌시장 적합성을 강조했다.

인증 측면에서 가장 큰 증가는 분야별로 34% 이상 증가한 <ISO 22000:2005(식품안전 경영시스템 표준)>와 전별로 21% 정도 증가한 <ISO/IEC 27001:2005(정보보안 경영시스템 표준)>로 나타났다.

Rob Steele ISO 사무총장은 2010년 말에 약 150만 명의 사용자를 가리키면서 “이러한 수치는 품질경영 부문인 ISO 9001에 의해 개척된 ISO 경영시스템모델의 지속적인 호응과 공공과 민간부문 기관이 직면한 다른 도전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”고 언급했다.

〈ISO 9001:2008〉은 품질경영시스템 전년 대비 4% 증가

〈ISO 9001:2008〉은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서 2010년 12월말까지 178개 국가에서 최소 110만9,905건의 ISO 9001 인증서가 발행되었다. 2010년에 총 106만 4,785건의 인증서를 발행하여 처음으로 100만 건을 웃돌았을 때, 2009년도에 비해 4만5,120건(+4%)의 증가를 나타냈다.

ISO 9001 인증서에 대한 집계 결과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, 2위는 이태리, 3위는 러시아가 기록했다. 인증서 발행수의 증가 또한 중국, 러시아, 이태리의 순위로 나타났다.

〈ISO 14001:2004〉는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으로 2010년 12월말까지, 155개 국가에서 최소 25만972종의 〈ISO 14001:2004〉 인증서가 발행되어 전년 대비 2만 7,823(+12%)건의 증가를 나타냈다.

〈ISO/IEC 27001 : 2005〉는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. 2010년 말 기준, 117개 국가에서 1만5,625건의 인증서가 발행되었다. 2010년 합계는 2009년도에 비해 2,691건(+21%)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2010년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3대 상위 국가는 일본, 중국 및 체코였고, 인증서 발행 총수 3대 상위 국가는 일본, 인도에 이어 영국으로 나타났다.

〈ISO 22000:2005〉는 전년 대비 34% 증가

〈ISO 22000:2005〉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. 2010년 말까지 138개 국가에서 최소 1만8,630건의 인증서가 발행되었다. 이 합계는 2009년 당시 129개 국가에서 1만3,881건이 발행되었을 때보다 4,749건(+34%)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. 인증서 발행건수 상위 3대 국가는 중국, 그리스에 이어 터키로 나타났고, 2010년도 증가율 상위 국가는 중국, 일본에 이어 그리스로 나타났다.

이번 결과는 ISO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. 해당 설문조사는 ISO 중앙사무국의 ISO 스토어 또는 마케팅,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부서와의 연락을 통해 50 스위스 프랑의 가격으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. **183**

ISO 9001 인증서에 대한 집계 결과 1위는 중국이 차지했다.

